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2, 인간의 이미지

© 2025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인간성과 죄의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인간과 죄에 대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인류학 교리에 대한 소개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은 인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세상이 인간을 기계로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중 하나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인간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보유한 기술이나 역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는 직원을 하루에 특정 시간 동안 임대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기계로 간주되는데,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로봇은 더 정확하고 일관적이어서 종종 작업을 더 잘 수행합니다. 게다가 주의가 덜 필요하고, 급여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사람이나 기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개인적 고통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관심사입니다. 기계나 더 진보된 기술의 도입으로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습니다. Business Week. 로봇의 침공은 노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Business Week, 1982년 3월 29일.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교회에도 스며든다.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목사를 선택할 때 이를 반영하여 주어진 사역, 목회적 또는 목회적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교회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개종자는 주로 교회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기부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는 노인과 격리된 사람들, 즉 자신의 회중 구성원을 방문하는 것을 쓰레기 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 목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인간을 기계로 보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유용한 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대기업이 경영진을 다루듯이 체스 말처럼 옮겨질 수 있으며, 의도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은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인간이 주로 동물계의 구성원이며, 그보다 더 높은 형태의 일부에서 유래한다고 봅니다 .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같은 종류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비슷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 다소 다르지만 반드시 더 뛰어나지는 않은 신체적 구조, 더 큰 두개골 용량, 더 고도로 훈련된 자극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아마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장 완벽하게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동기는 생물학적인 추진력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인간의 행동은 동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을 울리면 침을 흘리는 법을 배웠듯이, 인간도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조건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 보상, 그리고 덜 바람직하게 부정적 강화, 처벌은 통제와 훈련의 수단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폴 영의 행동 동기, 인간과 동물 활동의 기본 결정 요인, 1936을 참조하세요.

성적 존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을 인간 본성의 열쇠로 여겼습니다. 성이 공손한 사회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세상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을 중심으로 한 성격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인간 성격 모델은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부분인 이드가 있는데,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하지도 않으며, 충동과 욕망의 끓는 가마솥입니다. 이드에서 파생된 자아는 성격의 의식적인 구성 요소이며, 개인의 더 공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드에서 다소 변형되는 힘은 만족을 추구합니다.

초자아는 사람의 충동과 감정에 대한 검열관 또는 통제입니다. 부모의 제지와 규제를 내면화하거나 적어도 자녀의 활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추진력 또는 에너지의 원천은 리비도입니다. 리비도는 기본적으로 성적 힘으로 가능한 모든 방식과 장소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행동은 이 가소성 성적 에너지의 수정과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에너지는 다른 유형의 행동으로 승화되어 다른 목표를 향해 지향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 활동의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대한 새로운 입문 강의, 1933.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심각한 부적응은 이 성적 에너지가 처리되는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본능은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회는 이 만족을 위한 투쟁과 이에 자주 수반되는 공격성에 제한을 가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적응은 또한 사람의 성적 발달이 과정의 초기 단계 중 하나에서 멈췄을 때 발생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이론은 모든 인간 행동이 기본적으로 성적 동기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프로이트가 개발한 이론적 체계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기본 가정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철학은 다소 원시적인 방식으로 인간은 주로 성적 존재이며 섹스가 가장 중요한 인간적 경험이라고 가정합니다. 오늘날의 광고 대부분은 마치 성적인 의미가 없이는 아무것도 팔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듯합니다. 섹스에 대한 집착은 실제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적 존재라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뛰어난 구약학자 트렘퍼 롱먼이 솔로몬의 노래에 관해 강의하는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세상이 삶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의 책은 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루었고, 사실 그는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학술적 주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 체계가, 아니면 그냥 그랬을 뿐인데, 실례합니다. 때때로 윤리 규범을 지닌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는 섹스에 대해 너무 판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조셉 플레처는 이런 비판을 표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셉 플레처는 1967년에 도덕적 책임을 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가 지나치게 판단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섹스가 차지하는 과도한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일까요? CS 루이스는 우리 사회의 활동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CS 루이스의 *순수 기독교에서 인용했습니다.* "스트립티즈 공연을 위해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무대에서 여자가 옷을 벗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극장을 채울 수 있는 나라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요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덮개가 있는 접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제 웃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인 나라에 가면 무대에 덮개가 있는 접시를 가져와서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려서 불이 꺼지기 직전에 양고기 립이나 베이컨 조각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음식에 대한 식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시대, 즉 과거 시대 사람들은 우리 사이의 성적 본능 상태에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용문 닫기.

경제적 존재. 또 다른 견해는 경제적 힘이 인간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견해는 인간이 주로 동물계의 일원이라는 견해의 확장입니다.

그것은 삶의 물질적 차원과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적절한 음식, 의복, 주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양으로 이를 제공할 경제적 자원을 가질 때, 그들은 만족하거나 그렇게 하여 자신의 운명을 달성합니다.

인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일관되게 발전시킨 이념은 물론 공산주의, 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 이념은 경제적 힘이 역사를 진보적 단계로 움직이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노예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의 주인은 다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부를 소유합니다. 그런 다음 봉건제가 왔고, 여기서는 주인-종 관계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본주의가 왔고, 여기서는 지배 계급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여전히 농장과 공장의 사적 소유가 있지만, 정부는 소유주에게 특정한 제한을 가하여 노동자의 협상 입장을 더 쉽게 만든다. 결국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소유될 것이다.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는 사라질 것이고, 그와 함께 갈등도 생길 것이다. 이 계층 없는 사회에서 악은 시들어질 것이다. 바보의 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와. 변증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산주의의 모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인용하자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인용문 닫기. 시시.

나는 웃거나 울기도 한다. 물질적, 경제적 힘이 역사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것의 근원은 물론 칼 마르크스의 글이다.

변증적 유물론이 이 철학의 가장 완전한 공식화라면,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1936은 정보의 좋은 원천이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인간은 주로 경제적 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개념은 많은 비율의 미국 정치인의 철학인 듯하며, 불행히도 그것은 옳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의 진짜 관심사라고 말하는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힘은 인구 추세와 다른 것들과 같은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로 기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원, 일자리의 가용성, 우주의 말뚝입니다. 특정 실존주의자들, 특히, 그리고 사회의 더 광범위한 계층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만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 세상의 힘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힘, 많은 경우 우연의 힘으로 여겨집니다.

실례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개인적인 힘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들은 정치적 초강대국과 같이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적대적이거나, 기껏해야 그들의 복지와 필요에 무관심한 세상에 짓밟힌다고 묘사하는 비관적인 관점입니다. 그 결과는 무력감, 허무함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러한 굴하지 않는 절망감을 웅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그의 글인 신비주의와 논리(Mysticism, and Logic, 1929)에서 인용한 대로, 인간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조항이 없는 원인의 산물이며, 그의 기원, 성장,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믿음은 원자의 우연한 결합의 결과에 불과하며, 어떤 불도, 영웅심도, 생각과 감정의 강렬함도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로 보존할 수 없으며, 모든 시대의 노고, 모든 헌신, 모든 영감, 모든 인간 천재의 정오의 밝음은 태양계의 광대한 죽음 속에서 소멸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간의 업적이라는 사원 전체는 폐허가 된 우주의 잔해 아래에 필연적으로 묻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철학은 설 수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진실의 발판 안에서, 오직 굶힐 줄 모르는 절망의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영혼의 거처는 앞으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다. 무력한 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삶이다. 그와 그의 모든 종족에게 느리고 확실한 운명이 무자비하고 어둡게 떨어진다.

선과 악에 눈멀고, 파괴에 무모한 전능한 물질은 그 나름대로 끊임없이 굴러간다. 오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내일은 어둠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인간에게, 아직 타격이 가해지기 전에, 그의 작은 날을 고상하게 하는 고상한 생각만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만이 남았다. 잠시라도 자신의 지식과 비난을 용납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자랑스럽게 도전하고, 지치지만 굴하지 않는 지도, 무의식적인 힘의 짓밟는 행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이 만들어 낸 세상을 홀로 지탱한다.” 역겨운 일.

오, 우리는 마지막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주신 희망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살입니다.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여러 작품에서 부조리와 절망이라는 주제를 전개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The Wall*은 체포된 혁명 집단의 한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집단의 리더인 GRIES의 행방을 밝히지 않으면 처형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가 지하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삶, 여자친구, 가치관을 돌아봅니다. 그는 자신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담으로 경비원들에게 그리스가 묘지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를 찾으러 간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영웅은 풀려난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는 은신처를 떠나 묘지로 가서 그곳에서 잡혔습니다. 영웅의 삶, 그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은 운명의 아이러니한 꼬임으로 인해 살아남았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도스토옙스키에서 사르트르까지의 실존주의의 벽, 하버드의 유명하고 뛰어난 무신론 철학자 월터 카우프만이 편집, 1956년.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스의 고전적 신화를 재작업하면서 이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허고임입니다. 시지프스는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지하 세계로 소환되었을 때 그는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삶의 즐거움을 철저히 즐겼기 때문입니다. 처벌로 그는 다시 데려와져 언덕 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밀어 올리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다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로 걸어가 다시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지만, 그것은 다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알베르 카뮈, 시지프스 신화는 같은 책인 도스토옙스키에서 사르트르까지의 실존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정말 신나는 독서였습니다.

아, 세상에.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잠겨 있든, 다가올 지구의 자연적 멸종이나 핵 파괴에 빠져 있든, 단순히 정치와 경제 권력을 장악하는 자들과의 싸움에 빠져 있든, 인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자비에 맡겨진 질병이며, 비슷한 무력감과 체념에 사로잡혀 있다. 농담이 아니다.

자유로운 존재.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은 인간의 의지를 성격의 본질로 본다. 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보수적인 정치적, 사회적 견해에서 종종 드러난다.

여기서,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본성을 깨닫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그러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자유방임적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하며,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부장주의도 피해야 합니다. 자유 속에서 실패하는 것은 실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핍으로부터의 안정보다 낫습니다. 밀튼과 로즈 프리드먼,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1980.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지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입니다. 행동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알고자 하는 의지,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의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한 실제 문제는 첫 번째 요인에 있습니다. 한 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목표와 능력이 고려됩니다. 내부적인 것도 없고, 정부가 적절한 외부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인간이 되려면 자기 결정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적절합니다.

흔한 변명은 유전적 조건입니다. “나는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그건 내 유전자에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 인용문에 가까운 말이야. 또 다른 변명은 심리적 조건입니다. 나는 그렇게 자랐고, 나는 지금의 내가 되는 것을 도울 수 없어.” 또는 사회적 조건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기회가 없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인용문에 가까운 말이야. 이 모든 변명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비진정한 존재, 즉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의 예입니다.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차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하려는 모든 노력은 노예 제도, 전체주의 정부, 지나치게 규제적인 민주주의 또는 조작적인 사회적 스타일을 통해서든 잘못된 것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철학을 강력하게 구현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밤에서, 기둥에서 기둥까지 구덩이처럼 검게 변한 밤에서, 나는 정복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위해 어떤 신이든 감사드린다. 문이 얼마나 곧든, 두루마리가 얼마나 처별로 가득 차 있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회적 최종 관점은 개인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과 상호작용은 인간을 진정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적 존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집단 내에서 기능하지 않고, 인간적 목적이나 텔로스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는 때때로 인간이 실제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그가 또는 그녀가 관여하는 일련의 관계입니다. 즉, 인간성의 본질은 어떤 실체나 고정된 정의 가능한 본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와 연결망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육성함으로써 개인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 본질, 인간 본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의를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보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살아가는 관점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동물로 보는 관점과 같은 일부 개념은 추상적인 이론으로 충분히 유용할 수 있지만, 생물학자조차도 자신의 신생아를 단순히 다른 포유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실패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또는 성적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여전히 공허함과 불만족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계론적 관념과 같은 일부 견해는

비인격화되어 좌절스럽다. 이러한 견해를 인간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해로 간주하려면 개인의 개인적 경험의 측면을 무시해야 한다.

반면, 기독교적 관점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기독교적 인간 관점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며, 우연한 진화 과정을 통해 기원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행위를 통해 기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는 최고 존재의 의도에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참고문헌, 토마스 오든, 집중적 집단 경험, 1972를 언급했어야 했다. 톰 오든은 복음주의 기독교로의 개종과 매우 뛰어난 지성으로 자유주의적 문제와 관심사에 헌신한 것으로 유명하며, 매우 뛰어난 글을 썼으며, 복음주의 감리교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적 관심사에 헌신한 매우 뛰어난 지성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신정통주의에 반대하는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선택했고, 그는 자신의 고고정통주의라고 불렀으며,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교부, 중세인, 개혁가, 청교도 등의 가르침을 즐기고자 했다.

둘째, 인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관련하여, 신의 형상은 인간에게 본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향후 강의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인간을 다른 창조물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만이 창조주와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에게 응답하고, 신을 알고, 그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들의 목적과 그 목적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인간도 영원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시작되는 유한한 지점은 인간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신 영원한 신에 의한 창조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시간적 복지나 육체적

편안함에 대한 측면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또 다른 차원, 여러 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차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영원한 운명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보호할 때, 우리는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인간은 확실히 물리적 창조물과 동물 왕국의 일부로서,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복지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통합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고통이나 배고픔은 영적 삶에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사회에 배치되어 관계 속에서 기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모든 가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행복, 성취 또는 만족을 직접 추구함으로써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높은 근원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우리는 그 더 높은 존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만 충족감을 얻습니다. 그때 만족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산물로 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저는 그의 용어를 기억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 세상의 특징을 포함하여, 그를 기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우상 숭배이며, 신이 누구이고 우리가 신의 눈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인용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35. 현대 문화가 직접 또는 암묵적으로 묻는 많은 질문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의해 답해진다. 게다가, 이 관점은 개인에게 정체성 감각을 준다.

인간을 기계로 보는 이미지는 우리가 하찮은 톱니바퀴, 주목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귀중하고 신에게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세어져 있다.

마태복음 10:28~31.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악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두 마리의 참새가 한 뿔에 팔리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 외에는 그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아름다운 수사학입니다.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우리에게 안전하게 두고 있었지만, 실종된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3~7.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백 마리가 있으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광야에, 심지어 우리에게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그것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기쁨, 그렇습니다. 하느님 자신을 위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유지자, 역사와 그의 백성의 삶을 위한 목표로 완성을 두신 구속자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각 인간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경쟁하는 어떤 관점보다 그들에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인간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어떤 관점보다 더 완전하고 왜곡이 적은 인간 현상의 전체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다른 어떤 삶의 접근 방식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깊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인류 소개에 대한 노트의 이 섹션을 시편 8편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 시편 8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창조 시편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축복받은 위치에 있는 것을 기념합니다.

클루시오를 잊지 말자 . 오 주님,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 있는지. 그렇습니다. 창조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습니다.

어린아이와 유아의 입에서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 때문에 힘을 확립하셨고,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거시적으로 변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이크로로 간다. 어린 아기들은 그들이 내는 비명과 소음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다시 매크로로.

내가 당신의 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 달, 그리고 당신이
정해 놓으신 별들을. 다시 마이크로. 당신이 마음에 두시는 사람은
무엇이며, 당신이 돌보시는 사람과 병행하여 인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를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를 면류관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첫 조상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 씌우셨고, 중요한 면에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창조된 존재로서
그에게 당신 손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과 소, 그리고 들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길을 따라 지나가는 모든 것.

시편 8편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가 가장 잘 대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인간에 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과 죄의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인간의 이미지입니다.